

* 아래의 <보기>와 같은 관련된 단어를 찾아보세요.

<보기>

벽란도, 송나라, 요나라, 금나라, 일본, 중국, 인삼, 비단길, 코리아, 몽골, 아라비아,
화문석, 나전칠기, 종이, 고려양, 직지심경, 팔만대장경, 고려청자

벽	란	도	당	코	리	아	고
동	인	중	골	송	종	금	려
팔	삼	몽	국	나	나	이	청
만	일	요	나	라	전	비	자
대	직	지	심	경	칠	단	일
장	아	라	비	아	기	길	본
경	고	려	양	본	화	문	석

*다음 아래의 설명에 맞는 고려시대 문화유산을 <보기>에서 찾아 써 보세요.

<보기> 고려청자/Goryeo Celadon 직지심체요절/Jikji 금속활자인쇄/movable metal type 팔만대장경/ Tripitaka Koreana	
---	--

한국의 청자는 비색을 띠는 자기로써 고려시대에 최고의 품격으로 전성기를 이룸	
고려가 몽골의 침입을 불력으로 막아내고자 1236 년 강화군에서 조판에 착수하여 1251 년까지 약 16 년에 걸쳐 완성한 고려의 대장경이다. <고려대장경>을 목판에 새긴 기록물로 2007 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현존하는 세계 최초 금속활자 인쇄물로 간단히 직지라고도 불림	
금속으로 만든 활자 위에 잉크를 칠하고 종이를 덮어 찍는 인쇄	

*다음의 퀴즈를 읽고 O, X로 답해 보세요.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지고 있는 직지심체요절은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1377)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었다.	
일본은 동양에서 가장 오래전부터 도자기가 발달한 나라로 한국, 베트남, 중국, 태국 등의 여러 나라 도자기 제작에 영향을 끼쳤다.	
고려청자는 고려시대 초기에 왕실과 관청 그리고 귀족들의 사치품이었으나 나중에는 평민들이 널리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품이 되었다.	
도자기는 도기와 자기를 뜻하는 말이다. 도기는 800-1000 도 정도의 저온에서 구워 만든 것이고, 자기는 1300 도 이상의 온도에서 구어 낸 것이다.	
장경판전은 직지를 보관하기 위해 건립된 목조 건물로 1995 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고려의 왕실과 귀족들은 중국의 청자를 좋아했지만 그들의 많은 수요에 비해 수입이 한정되어 있었기에 고려의 도기 장인들의 백자 제작을 요구하게 되었다.	

*다음 그림에 맞는 이름을 찾아 연결해 보세요.



•

• 벽란도



•

• 장경판전



•

• 팔만대장경



•

• 고려청자